

광주시장·전남지사 등 지역 정치권 ‘봉하마을로’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 집결

기초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도 조용한 참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5·18민주화운동 43주년에 이어 이번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리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향한다.

21일 지역 정·관가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이 오는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다.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김진표 국회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다.

광주·전남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지난 1월 중순 설 명절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과 함께 신년 인사 차 봉하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방문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이형석 의원은 추도식 하루 전날인 22일 지역구인 광주 북구를 지역위원회 당원 등 150여 명과 함께 봉하마을을 찾았다.

참배 후에는 묘역 옆에 있는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관’을 찾아 당원들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치열했던 삶을 돌아본 뒤 양산 펜션책방

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환담시간도 가졌다.

이 의원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지역구 당원들과 함께 참배했다”며 “민주당을 이끈 지도자들의 정신을 배우는 좋은 계기였다”고 말했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광주·전남 사무국장을 지낸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도 휴일 등을 이용해 ‘조용한 참배’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슬비기자

구제역 비상

348만 마리 살처분 ‘악몽’ 재연될라...이번주 방역 ‘골든타임’

한우 농장에서 4년여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고 불과 열흘 만에 11건이 발생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을 비롯해 보은·괴산·진천·음성, 충남 천안, 대전, 세종 등 인근 7개 시·군의 구제역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구제역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총 4단계로 나뉜다. 구제역 위기 단계가 최고로 격상된 것은 지난 2018년 3월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방역 당국은 이번 사태가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전국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마쳤다. 시·군별로 공수의사, 축협 직원, 가축방역관 등으로 긴급접종확인반을 구성해 접종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을 포함해 일부 농장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저조해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사육 마릿 수의 4%를 검사해 항체양성률을 파악했는데 이를 8%로 두 배가량 늘리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번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미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방역 관계자는 “오염된 지역을 출입한 사람이나 차량 등을 통해 이미 전파됐거나 밀접 접촉이 아닌 공기중으로 옮겨 다니는 구제역 바이러스 특성상 추가 확산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구제역으로 살처분 한 한우는 1300여 마리로, 우리나라 전체 사육 두수의 0.03% 수준이다.

자칫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며 소와 돼지 348만 마리를 살처분해야 했던 지난 2010~2011년의 대재앙이 재연될 수 있다. 따라서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통상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주를 방역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방역 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와 항체 형성기 등을 고려했을 때 최초 발생지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 전파됐다면 이번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며 “다른 지역이나 축종으로 퍼지지 않도록 방역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용일기자

염도 높은 간척지에 밭작물 ‘울무 재배 성공’...전국 최초

해남 권길환 농가, 육묘 이식기 활용 표준화 재배기술 개발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가 농정 최대 현안인 요즘 물 빠짐이 좋지 않고 염도가 높은 간척지에 밭작물 울무를 성공적으로 재배한 농가가 있어 화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남 마산면 권길환

산막영농조합법인 대표는 2015년부터 간척지에 콩·녹두·기장·수수 등 밭작물을 재배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3ha 간척지에 울무 재배를 시작했다.

전남도와 농업 전문기관은 울무의 경우 염

도가 0.2% 이상으로 높고 물 빠짐이 좋지 않은 간척지에서 사실상 재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권 대표는 간척지 울무 재배 첫 해 기술 지도를 받거나 자문을 할 곳이 없어 오로지 직접 경험을 통해 재배기술을 터득해야 했다.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종자를 심는 것부터 잡초 제거까지 기계화가 되지 않아 인력에 의존해야 했고 수확량도 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10a당 240kg이 적은 160kg에 불과했다.

수확량은 적었지만 경험을 통해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울무가 1주일간 물에 잠겨도 수확이 가능한 사실을 확인했고 염도도 1주일에 3~4번 물 걸러대기를 통해 낮출 수 있다는 것을 터득했다.

이어 재배 3년 차인 지난해부터 울무를 버치럼 육묘로 키워 채소 이식기로 심은 결과, 뿌리 활착이 좋고 초기 생육이 빨라 10a당 수확량이 일반 밭 재배(300kg)의 80% 수준인 240kg에 달했다.

올해는 해남군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3ha 시험포를 운영해 간척지에서 누구나 쉽게 울무를 재배하도록 토양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표준화된 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기술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다.

권 대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포트 파종관 제작을 의뢰해 포트 육묘 이식기로 울무를 심어 밭에서 재배한 것과 비슷한 300~400kg을 수확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울무 재배를 2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 대표가 수확한 울무는 해남 땅끝항도영농조합법인과 계약재배를 통해 전량 판매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쌀 재배를 전년도 15만4000ha보다 7000여ha 감축한 14만7000ha로 유지키 위해 전락작물직불금과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등에 438억원을 지원하고 논 타작물 재배 성공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해남=기동취재본부



해운대 물놀이 인파

21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건강한 밥상의 시작

청정엘로우시티 장성 먹거리